우.월.한. 국.어 이.유.진

2021 국회직8급 국어 해설

문 1. <보기>에서 밑줄 친 어휘의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인 것은?[1)]

<보기>
ㄱ. 농촌 생활에 제법 길이 들었다.
ㄴ. 그 먼 길을 뚫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ㄷ. 길이 많이 막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빠르다.
ㄹ. 서랍은 길이 들지 않아 잘 열리지 않았다.
ㅁ. 통나무 굵기가 한 아름이 넘고, 길이는 열 길이 넘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ㄷ), (ㄴ, ㄹ, ㅁ)
③ (ㄱ, ㄷ), (ㄴ, ㄹ), (ㅁ)
④ (ㄱ, ㄹ), (ㄴ, ㄷ), (ㅁ)
⑤ (ㄱ, ㄹ), (ㄴ, ㅁ), (ㄷ)

문 2. ㉠~㉤ 중 <보기>의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2)]

(㉠) 서구에서는 고대부터 인간을 정신과 신체로 양분하여 탐구하였다. 정신은 이성계로서 지식에 관여하는 반면, 신체는 경험계로서 행위에 관계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 플라톤은 정신계와 물질계를 본질계와 현상계로 구분한다. (㉢) 전자는 이데아계로서 이성적인 영역이고 후자는 경험계로서 감각적 영역이라고 보았다. (㉣) 그러나 그의 이데아론을 기반으로 신체를 경시하거나 배척하던 경향과는 달리, 최근에는 신체에 가치를 부여하여 그것을, 영혼을 보호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

<보기>
여기서 참된 실체는 이데아계로서 경험계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대상이며, 경험계는 이데아의 그림자, 허상, 모사에 불과하다고 간주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3. <보기>에서 맞춤법에 맞는 문장은 모두 몇 개인가?[3)]

<보기>
ㄱ. 앞집 사는 노부부는 여전히 금실이 좋다.
ㄴ. 빈칸을 다 메워서 제출하세요.
ㄷ. 언덕바지에서 뛰놀던 꿈을 꾸었다.
ㄹ. 동생은 부모님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짖궂은 장난을 친다.
ㅁ. 실내에서는 흡연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4.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4)]

① 부모님의∨염려를∨뒤로∨하고∨유학길에∨올랐다.
② 낡은∨그림∨하나가∨한쪽∨맞은편∨벽에∨걸려∨있었다.
③ 그∨밖에∨공∨모양으로∨굳은∨용암의∨흔적∨등이∨있었다.
④ 성안에는∨여러∨곳에∨건물∨터와∨연못∨터가∨남아∨있다.
⑤ 200∨미터나∨되는∨줄을∨10여∨일간∨만든다.

문 5. 외래어 표기가 모두 맞는 것은?[5)]

① 바통, 기브스, 디렉터리
② 도너츠, 래디오, 리포트
③ 리모콘, 렌트카, 메세지
④ 배터리, 바베큐, 심포지엄
⑤ 앙코르, 부티크, 앙케트

문 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6)]

인간은 주로 언어를 통해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를 지닌 사람을 치료하는 정신치료에서도 언어가 주된 수단이다. 그러나 언어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불완전하고 제한된 도구이다. 사실, 인간은 과거 기억의 많은 부분을 언어적 명제의 형태보다는 시각적 이미지의 형태로 기억 속에 담고 살아간다.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 속에 포함되어있는 풍부하고 생생하며 미묘한 경험들은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다. 이에 정신 치료에서는 언어가 아닌 다른 치료수단을 모색해왔으며, 그 결과 미술치료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미술 치료는 미술과 심리학의 결합이다. 언어로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는 심리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감정의 이완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미술 치료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경험한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전달할 수 있다. 학대를 받거나 폭력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말하는 것 자체가 공포나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데, 미술은 그러한 아동의 불안을 감소시키면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말로써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꺼릴 경우, 미술은 성인에게도 유용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단지, 아동은 발달학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미술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미술 치료가 작용하는 원리는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근본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① 대화만을 통한 정신치료는 온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② 인간은 미술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다.
③ 인간이 언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④ 인간의 시각적 경험은 언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라질 수 있다.
⑤ 아동과 성인의 미술 치료 원리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문 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7)]

"주인 마누라 하는 말이, 우리 내외 종살이하면 250냥 준다고 하니 그렇게 합시다. 나는 부엌일하고 서방님은 머슴이 되어, 다섯 해 작정만 하고 보면 만금을 못 벌까? 만 냥 돈만 번다면 그런대로 고향 가서, 이전만큼은 못 살아도 남에게 천대는 안 받으리다. 서방님도 허락하시고 지성으로 돈 벌어봅시다."

"이 사람아, 내 말 듣게. 돈도 돈도 좋지마는 내사 내사 못하겠네. 그런대로 다니면서 빌어먹다가 죽고 말지! 아무리 신세가 곤궁하나 군노(軍奴) 놈의 사환(使喚) 되어, 한 손만 까딱 잘못하면 무지한 욕을 어찌 볼꼬? 내 심사도 할 말 없고 자네 심사 어떠할꼬?"

"어찌 평생을 빌어먹겠다 하시오! 집 지키는 사나운 개가 무섭기도 하고, 누가 우리에게 좋다고 밥을 주랴? 밥은 빌어먹는다 치고, 옷은 누구에게 빌어 입소? 서방님아! 그런 말 말고 이전 일도 생각해 보시오. 우리도 돈 벌어 고향 가면, 이방을 못 하며 호장을 못하겠소? 부러울 게 무엇이오?"

"나는 하자면 하지만, 자네는 여인이라 나는 끝내 모르겠네."

"나는 조금도 염려 말고 그렇게 결정합시다."

주인 불러 말한다.

"우리 사환 일할 것이니, 이백 냥은 우선 주고 쉰 냥일랑 한 달 지날 때 주오."

행주치마 떨쳐입고 부엌으로 내달려, 사발 대접 종지 접시 몇죽 몇 개 헤아려서 날마다 정돈하여 솜씨 나게 잘도 한다. 우리 서방님 거동 보소! 돈 이백 냥 받아놓고, 일수 월수 체계(遞計) 놀이 제 손으로 적어가며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석 자 수건 머리에 두르고 마죽 쑤기, 소죽 쑤기, 마당 쓸기, 봉당 쓸기, 평생 않던 일 눈치 보아 잘도 하네. 3년을 나고 보니 만여 금 돈 되었구나! 다섯 해까지 갈 것 없이 빌려준 돈 추심(推尋)을 알뜰히 하여 내년에는 돌아가세.

그런데 병술년(1886년) 괴질이 닥쳤구나! 안팎 식솔 30여 명이 모두 병들었다가 사흘 만에 깨어나 보니, 다 죽고서 주인 하나 나 하나뿐이라. 수천 호가 다 죽고서 살아난 이 몇 없다네. 이 세상 천지간에 이런 일이 또 있는가?

① 주인공 부부는 과거에 고향에서 빈곤하게 살았다.
② 주인공 부부는 육체노동 외에도 틈틈이 장사를 하여 돈을 모았다.
③ 남편은 무슨 일이든 해서 돈을 벌어 고향에 가서 살고 싶어 한다.
④ 남편은 남의 집 종살이하는 것이 여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망설였다.
⑤ 반복되는 자연 재해로 주인공 부부의 꿈이 좌절되었다.

문 8. 다음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8)]

부여의 정월 영고, 고구려의 10월 동맹, 동예의 10월 무천 등은 모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나라 안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음주가무를 하였던 일종의 공동 의례였다. 이것은 상고시대 부족들의 종교·예술 생활이 담겨 있는 제정일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제천행사는 힘든 농사일과 휴식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농경사회의 풍속이다. 씨뿌리기가 끝나는 5월과 추수가 끝난 10월에 각각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는 온 나라 사람이 춤추고 노래 부르며 즐겼다. 농사일로 쌓인 심신의 피로를 풀며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즐겼던 일종의 공동체적 축제이자 동시에 풍년을 기원하고 추수를 감사하는 의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고대의 축제는 국가적 공의(公儀)와 민간인들의 마을굿으로 나뉘어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이것은 사졸들의 위령제였던 신라의 '팔관회'를 거쳐 고려조에서는 일종의 추수감사제 성격의 공동체 신앙으로 10월에 개최된 '팔관회'와, 새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성격으로 정월 보름에 향촌 사회를 중심으로 향촌 구성원을 결속시켰던 '연등회'라는 두 개의 형식으로 구분되어서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팔관회는 지배 계층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고, 연등회는 농경의례적인 성격의 종교집단행사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한가위 추석도 이런 제천의식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조선조에서는 연등회나 팔관회가 사라지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 산대잡극이 성행했다. 즉 광대줄타기, 곡예, 재담, 음악 등이 연주되었다. 즉 공연자와 관람자가 분명히 구분되었고, 직접 연행을 벌이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는 그들을 관람하는 사람들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는 마을굿이나 두레가 축제적 고유 성격을 유지하였다. 즉 도당굿, 별신굿, 단오굿, 동제 등이 지역민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① 두 개념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다.
② 시대별로 비판을 제시하며 대안을 서술하고 있다.
③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개념을 정당화하고 있다.
④ 두 개의 이론을 제시하고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⑤ 시대별로 중심 화제의 성격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문 9.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9)]

모든 섬의 주민들은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기사이거나, 항상 거짓만을 말하는 건달이다.

○ 첫 번째 섬
갑: 을이 기사이거나, 혹은 이 섬은 마야섬이다.
을: 갑이 건달이거나, 혹은 이 섬은 마야섬이다.

○ 두 번째 섬
갑: 우리 둘은 모두 건달이고, 이 섬은 마야섬이다.
을: 갑의 말은 옳다.

○ 세 번째 섬
갑: 우리 둘은 모두 건달이고, 이 섬은 마야섬이다.
을: 우리 둘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건달이고, 이 섬은 마야섬이 아니다.

* 단, 갑과 을은 각 섬의 주민이며, 갑과 을 이외의 주민은 없다.

<보기>
ㄱ. 첫 번째 섬에서 갑과 을은 모두 건달이며, 첫 번째 섬은 마야섬이 아니다.
ㄴ. 두 번째 섬에서 갑과 을은 모두 건달이며, 두 번째 섬은 마야섬이 아니다.
ㄷ. 세 번째 섬에서 갑과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은 건달이며, 세 번째 섬은 마야섬이 아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문 1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0]

"워싱턴 : 1 = 링컨 : x (단, x는 1, 5, 16, 20 가운데 하나)"라는 유추 문제를 가정해보자. 심리학자 스턴버그는 유추 문제의 해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 '부호화'는 유추 문제의 각 항들이 어떠한 의미인지 파악하는 과정이다. '워싱턴', '1' , '링컨' 등의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것이 부호화이다. 두 번째, '추리'는 앞의 두 항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규칙을 찾는 과정이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워싱턴'과 숫자 '1'로부터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대응'은 유추의 근거 영역의 요소들과 대상 영역의 요소들을 연결하는 단계이다. '워싱턴'과 '링컨'을 연결하고, 숫자 '1' 과 미지항 x를 연결하는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네 번째, '적용'은 자신이 찾아낸 규칙을 대상 영역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며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열여섯 번째 대통령임을 안다면, 적용의 단계에서 미지항 x의 답이 '16'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다섯 번째, '비교'는 자신이 찾아낸 미지항 x의 값과 다른 선택지들을 비교하는 과정이다. 만약 '16'을 답으로 찾은 사람에게 조지 워싱턴이 1달러 지폐의 인물이고 아브라함 링컨이 5달러 지폐의 인물이라는 정보가 있다면, 정답의 가능성이 있는 두 개의 선택지 사이에서 비교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정당화'는 비교의 결과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답을 선택하는 과정이며, 마지막으로 '반응'은 자신이 찾아낸 최종적인 결론을 말하거나 기록하는 과정이다.

① 미국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부호화' 단계에서 실패할 것이다.
② '워싱턴'이 미국의 도시 이름이라는 정보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추리'의 단계에서 실패할 것이다.
③ '링컨'이 몇 번째 대통령인지에 대한 정보와 미국의 화폐에 대한정보가 없는 사람이라면, '대응'의 단계에서 실패할 것이다.
④ 미국의 화폐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만 미국 역대 대통령의 순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이라면, '적용'의 단계에서 '5'를 선택할 것이다.
⑤ 'x'에 들어갈 수 있는 답으로 '5'와 '16'을 찾아낸 사람이라면, 'x는 순서를 나타낸다'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을 때 '정당화'의 단계에서 '16'을 선택할 것이다.

문 11.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1]

<보기>

관형사는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뒤에 오는 단어를 한정하고 꾸미는 직능을 보이더라도 그 단어가 격조사나 어미를 취할 수 있는 단어라면 관형사가 될 수 없다.

① 그는 모든 욕심을 버리기로 다짐했다.
②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
③ 그는 자기 일 밖의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④ 오늘따라 교실에서 뛰는 학생들이 많다.
⑤ 진수는 자동차를 어느 곳에 세워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문 12. (가)~(마)를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12]

(가) 내일 날씨는 못 맞히어도 다음 계절 기후는 맞힐 수 있다. 즉, 오늘 날짜로부터 정확히 1개월 혹은 2개월 뒤에 한반도에 비가 올지 말지의 여부는 맞히지 못하지만 계절 평균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많을지 적을지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주가로 치면 하루하루의 등락은 맞히지 못하더라도 수개월의 추세 정도는 맞힐 수 있다는 것이다.

(나) 그렇다면 다음 계절의 기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의 날씨를 모두 정확히 맞히어야만 하는 것인가? 내일부터 3개월 후의 미래까지 매일매일의 날씨를 정확히 맞힌다는 것은 현재의 기상 예측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내일의 날씨 정도야 이제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히고 있지만, 사나흘 이후의 강수 예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지 않은가?

(다) 더구나 이론적으로도 날씨 예측은 2주일 정도가 한계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기후 예측은 모두 허구일까? 기후 예측 관련 기사에 단골로 달리는 댓글 말마따나 내일 비가 올지 말지도 모르면서 다음 계절에 비가 많이 올지 말지를 맞히겠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기상 예측과 기후 예측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착각이다.

(라) 기상청에서는 매일의 날씨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일 외에도 올 여름이 평년에 비해 더 더울지 혹은 올 겨울이 평년에 비해 추울지 등에 대한 예측 정보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전자는 기상 예측이라고 하며, 후자는 기후 예측이라고 한다.

(마) 기후는 짧게는 한 달, 통상적으로는 약 세 달 동안의 평균 날씨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기상 현상들의 누적이 기후로서 정의가 되다 보니 기상과 기후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 특정해 여름철에 폭염인 날들이 많았다면 그해 여름철 평균 온도도 높은 식이다. 따라서 날씨 예측이 정확하면 기후 예측도 정확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① (가)-(다)-(나)-(라)-(마)
② (가)-(마)-(라)-(나)-(다)
③ (라)-(나)-(마)-(가)-(다)
④ (라)-(마)-(나)-(다)-(가)
⑤ (마)-(라)-(나)-(다)-(가)

문 13.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13]

(㉠) 따라서 인생의 본질은 목표의 설정과 성취가 아니라 유지와 지속이다. 목표 성취가 주는 짧은 행복감이 지나가고 나면 특별한 일 없이 반복되는 무수한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학창 시절에 이 사실을 깨닫기 어려운 이유는 인생 초반에는 목표의 설정과 성취가 짧은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3~4년이면 졸업을 할 수 있고 졸업하면 새로운 목표가 기다린다.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과 결혼, 출산 등은 비교적 가까운 시일 안에 달성 가능한 목표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이벤트들은 대개 인생의 초반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건들이 한차례 마무리되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이르면 삶이 급격히 무의미해진다는 느낌이 든다.

짧은 사이클에 익숙해져 있는 이들은 중노년의 삶이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기 쉽다. 모두가 똑같아 보이는 저런 삶을 사느니 나만의 특별하고 새로운, 하루하루가 설레는 삶을 살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신선함은 익숙함이 되고 설렘은 가라앉는다. 사람들은 빠르게 상황에 적응하고 즐거움의 강도는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다.

관건은 생각보다 긴 내 삶을 지속해 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냥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기왕에 주어진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불행히도 학교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애초에 학교는 삶의 의미를 찾아주거나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치도록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그때의 고민을 해결해주거나 위로해줄 수는 있어도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끼는 지점은 사람마다 다른데 누가 어떻게 그걸 일일이 맞춰줄 수 있을까.

① 삶은 생각보다 지루하다.
② 삶은 생각보다 행복하다.
③ 삶은 생각보다 짧다.
④ 삶은 생각보다 고통스럽다.
⑤ 삶은 생각보다 길다.

문 14. <보기>의 속담과 유사한 의미의 사자성어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14]

<보기>
㉠ 도랑 치고 가재 잡고.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 원님 덕에 나팔 분다.

① ㉠: 일거양득(一擧兩得)
② ㉡: 고진감래(苦盡甘來)
③ ㉢: 목불식정(目不識丁)
④ ㉣: 동가홍상(同價紅裳)
⑤ ㉤: 호가호위(狐假虎威)

문 15. 밑줄 친 관형절의 성격이 다른 것은?[15]

① 우리는 <u>급히 학교로 돌아오라는</u> 연락을 받았다.
② <u>내가 어제 책을 산</u> 서점은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다.
③ <u>충무공이 만든</u>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었다.
④ 우리는 <u>사람이 살지 않는</u> 그 섬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⑤ <u>수양버들이 서 있는</u> 돌각담에 올라가 아득히 먼 수평선을 바라본다.

문 16. 밑줄 친 단어의 표준 발음이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16]

<보기>
ㄱ. 마치 <u>계절병</u>[계 : 절뼝]을 앓는 것 같았다.
ㄴ. <u>신윤복</u>[신뉸복]은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이다.
ㄷ. 이 신문의 <u>논조</u>[논쪼]는 매우 보수적이다.
ㄹ. 참석자의 <u>과반수</u>[과 : 반쑤]가 그 안건에 찬성하였다.
ㅁ. 정부는 수입 상품에 높은 <u>관세</u>[관세]를 물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ㅁ
④ ㄴ, ㄹ
⑤ ㄴ, ㅁ

문 17. <로마자 표기법>의 각 조항에 들어갈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17]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예: ㉠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예: ㉡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예: ㉢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가 나는 경우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예: ㉣
[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

① ㉠: '학여울'은 [학녀울]로 발음되므로 'Haknyeoul'로 쓴다.
② ㉡: '왕십리'는 [왕심니]로 발음되므로 'Wangsimni'로 쓴다.
③ ㉢: '해돋이'는 [해도지]로 발음되므로 'haedoji'로 쓴다.
④ ㉣: '집현전'은 [지편전]으로 발음되므로 'Jipyeonjeon'으로 쓴다.
⑤ ㉤: '팔당'은 [팔땅]으로 발음되므로 'Palddang'으로 쓴다.

문 18. 다음 글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8]

학습심리학에서 '전이'란 이전에 수행되었던 학습 및 훈련의 경험이 이후의 학습 및 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전이가 이루어질 때, 두 경험이 어떠한 영역에 속하는가에 따라 전이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동종 전이'는 기존의 경험과 새로운 경험이 동일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예컨대 새로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실험을 설계하기 위해 기존의 HIV 실험 설계를 참조한다면 이는 동종 전이에 해당한다. 기존의 경험과 새로운 경험이 인접한 영역에 해당한다면 이는 '계열 전이'이다. HIV 실험 설계를 또 다른 미생물 실험의 설계에 참조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경험과 새로운 경험이 전혀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경우가 '원거리 전이'이다. 화학자 케쿨레는 꿈속에서 본 뱀의 모습으로부터 벤젠의 화학적 결합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원거리 전이이다.

한편, 전이는 영향 관계에 있는 두 경험의 위계 수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기존의 경험이 새로운 경험을 위해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될 때, '수직적 전이'가 발생한다. 반면 두 경험이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어 기존의 경험이 새로운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새로운 경험을 위해 기존의 경험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경우 '수평적 전이'에 해당한다.

① 의사가 대장암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대장암 환자를 치료해낸다면 동종 전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천문학자가 물체의 운동에 대한 공식을 활용하여 혜성의 이동 속도를 계산해낸다면 계열 전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문학 비평가가 아동심리학 이론을 인용하여 동화 속 인물의 심리 현상을 분석한다면 원거리 전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초등학생이 사각형의 넓이 계산법을 이용하여 사각형인 교실의 면적을 구한다면 수직적 전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수직적 전이와 수평적 전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영향 관계에 있는 두 경험의 위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문 19.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19]

철로 옆으로 이사를 가면 처음 며칠 밤은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잠에서 깨지만 시간이 흘러 기차 소리에 친숙해지면 그러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귀에서 포착한 소리 정보가 뇌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물리학적인 음파의 속성은 서서히 의미를 가진 정보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에도 정보가 전달되어 모든 소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감정을 유발한다. 또 소리 정보 전달 과정은 기억중추에도 연결되어 있어서 현재 들리는 모든 소리는 기억된 소리와 비교된다. 친숙하며 해가 없는 것으로 기억되어 있는 소리는 우리의 의식에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익숙해진 기차 소음은 뇌에 전달은 되지만 의미없는 자극으로 무시된다. 동물들은 생존하려면 자기에게 중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동물들은 자신의 천적이나 먹이 또는 짝짓기 상대방이 내는 소리는 매우 잘 듣는다.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에도 잠에서 깨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기 아기의 울음소리에는 금방 깬다. 이는 인간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외부의 소리가 귀에 전달되는 것을 그대로 듣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소리가 뇌에서 재해석되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자기 집을 청소할 때 들리는 청소기의 소음은 견디지만 옆집 청소기 소음은 참기 어려운 것도 그 때문이다.

① 소리의 선택적 지각
② 소리 자극의 이동 경로
③ 소리의 감정 유발 기능
④ 인간의 뇌와 소리와의 관계
⑤ 동물과 인간의 소리 인식 과정 비교

문 20. 다음은 훈민정음의 제자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20]

훈민정음의 글자를 만드는 방법은 상형을 기본으로 하였다. 초성 글자의 경우 발음기관을 상형의 대상으로 삼아 ㄱ, ㄴ, ㅁ, ㅅ, ㅇ 기본 다섯 글자를 만들고 다른 글자들 중 일부는 '여(厲: 소리의 세기)'를 음성자질(音聲資質)로 삼아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는데 이를 가획자라 한다.

① 아음 ㄱ에 획을 더해 가획자 ㅋ을 만들었다.
② 설음 ㄴ에 획을 더해 가획자 ㄷ을 만들었다.
③ 순음 ㅁ에 획을 더해 가획자 ㅂ을 만들었다.
④ 치음 ㅅ에 획을 더해 가획자 ㅈ을 만들었다.
⑤ 후음 ㅇ에 획을 더해 가획자 ㆆ(옛이응)을 만들었다.

문 21. '무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21]

버스가 산모퉁이를 돌아갈 때 나는 '무진 Mujin 10km'라는 이정비를 보았다. 그것은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길가의 잡초 속에서 튀어나와 있었다.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 당해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恨)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女鬼)가 뿜어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써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 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그들은 이제 점점 수군거림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들어 가고 있으리라. 자기 자신조차 잊어버리면서, 나중에 그 소용돌이 밖으로 내던져졌을 때 자기들이 느낄 공허감도 모른다는 듯이 그들은 수군거리고 수군거리고 또 수군거리고 있으리라.

무진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타인은 모두 속물들이라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타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무위(無爲)와 똑같은 무게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장난이라고.

① 실체를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
② 자연과 합일된 삶을 꿈꾸고 있다.
③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포용적 자세를 지니고 있다.
④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
⑤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

문 22. 다음 시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22]

어느 머언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뇨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위어가며
서글픈 옛 자췬 양 흰 눈이 내려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머언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잃어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회(追悔)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

한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호올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흰 눈은 내려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① 이 시는 눈 내리는 아침의 정경 속에 피어오르는 추억을 그리고 있어.
② 눈발이 세차게 날리는 것은 화자의 슬픔이 벅차게 되살아오기 때문이지.
③ 이 시에서 눈이 '그리운 소식', '서글픈 옛 자취', '잃어진 추억의 조각', '차단한 의상'으로 비유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해.
④ 이 시에서 '나'를 슬프게 하는 추억, 과거의 경험은 아마도 친구와 관계가 있겠지.
⑤ 마지막 두 줄, '흰 눈은 내려 내려서 쌓여/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에서 '눈'은 해소된 슬픔을 의미하지.

문 23.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23]

> 우리가 이용하는 디지털화된 정보들은 대다수가 아날로그 기반에서 생성된 것이다. 온라인에서 보는 텍스트 정보, 사진, 동영상 대부분이 기존의 종이 매체나 필름에 기록된 것들이다. 온라인 게임을 정보 통신 시대의 독특한 문화양상이라고 하지만, 인기를 끌고 있는 많은 게임은 오래전부터 독자들로부터 사랑받던 판타지 문학에서 유래했다.
>
> 아날로그가 디지털과 결합해 더욱 활성화되기도 한다. 동양의 전통 놀이 중 하나인 바둑과 장기도 그렇다. 전형적인 아날로그 문화의 산물인 바둑이 인터넷 바둑 사이트 덕분에 더욱 대중화된 놀이가 되었다. 예전에는 바둑을 두기 위해 친구와 약속을 잡거나 기원을 찾아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든 대국을 즐길 수 있다.
>
> 따라서 (㉠)

①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를 수직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본질과 거리가 멀다.
②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를 수평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본질과 거리가 멀다.
③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본질과 거리가 멀다.
④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를 입체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본질과 거리가 멀다.
⑤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를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본질과 거리가 멀다.

문 24.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24]

> 처칠이 영국 총리였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의 개전 위험성이 극도로 고조되면서, 그는 '해안가에서 맞서 싸울' 필요성에 관한 유명한 방송 연설을 했다. (㉠) 당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처칠은 그럴 수 없을 때라도 완벽하게 승전에 자신이 있다는 투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거짓말인가, 대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설득인가?
>
> '거짓말', '신뢰', '거짓된 행동' 등의 용어는 선출된 지도자들이 수행해야 할 다른 많은 정책들을 설명하기에도 그리 적절하지 않다. 사건의 심각성, 정보기관의 오류, 정치인의 성격과 정치적 배경 등이 원인이 되어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나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 신뢰와 불신은 거의 모든 주류 정치지도자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되었고, 때로는 진짜 부패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거짓말을 구분하는 것이 급격히 어려워질 정도였다. (㉢) 우리는 유권자의 이런 혐오를 이해할 수 있다. 정치에서 경멸 어린 불신을 받을 만한 진짜 부패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계속 이어진다. (㉣)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가해지는 엄격한 정밀 검증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더 부도덕하다고 평가할이유도 없다.
>
> 그렇지만 많은 나라에서 여러 정당과 정치인은 통렬하게 불신받을 만한 부패 혐의에 빠지곤 한다. (㉤) 그들의 부패 덕분에 아웃사이더들이 유권자의 호응을 대신 얻어 활동하는 동안, 주류는 번성하는 데 실패하곤 했다.

① ㉠: 처칠은 진실하지 않았다.
② ㉡: 정치지도자는 유권자의 일시적 신뢰에 연연하지 않고, 불행한 진실이라도 전달해야 한다.
③ ㉢: 부패는 유권자를 민주주의 정치에 등 돌리게 하고 선출된 지도자를 혐오하게 만든다.
④ ㉣: 선출된 정치인이 다른 나머지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고 단정할 이유는 없다.
⑤ ㉤: 주류였던 세력은 부패 때문에 쇠락하기도 한다.

문 25.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25)]

> 용(龍)은 한반도 곳곳에서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곤 하였다. 해안 지역의 경우, 물을 관리하는 용의 능력은 곧 어획량을 좌우하는 능력으로 인식되었다. 충남 서산에는 ㉠황금산 앞바다의 황룡과 ㉡칠산 앞바다의 청룡이 조기 떼를 두고 경쟁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황룡은 공씨 성을 가진 청년에게 청룡을 쏘아 줄 것을 부탁하는데, 이 청년이 실수로 황룡을 쏘는 바람에 황금산 앞바다에서 조기가 잡히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농경 지역에서도 물의 많고 적음은 농사의 성패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였기에, 용이 풍흉을 결정지을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황해도 장연군 용정리에는 연못을 두고 ㉢젊은 청룡과 싸우던 ㉣늙은 황룡을 ㉤활 잘 쏘는 청년이 도와준 뒤 기름진 논을 얻었다는 전설이 있으며, 전북 김제에는 ㉥벽골제를 수호하는 백룡과 대립하며 ㉦가뭄을 발생시키던 청룡이 스스로를 제물로 바친 태수의 외동딸에게 감동하여 물러났다는 전설이 있다.
>
>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용과 관련된 전설들에서 종종 용들의 대립에 개입하거나 용을 도와주는 인간 존재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비범한 재주를 지닌 이 인물들은 종종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용을 도와주는 데 성공하고 그 대가로 옥토를 일구거나 높은 지위에 오른다. 이때 용은 풍요의 신에서 권력의 신으로 변형된다.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경우, 그의 할아버지 ㉧작제건이 ㉨서해 용왕을 괴롭히던 ㉩늙은 여우를 제거하고 용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용이 영웅의 강력한 힘에 대한 증거로, 나아가 왕권의 신성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① ㉠과 ㉩은 선한 용과 대립하는 악한 존재이다.
② ㉡과 ㉦은 풍요의 신에서 권력의 신으로 변형된 존재이다.
③ ㉢과 ㉥은 영웅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존재이다.
④ ㉣과 ㉨은 인간 존재의 도움을 받은 신적 존재이다.
⑤ ㉤과 ㉧은 용을 도와준 대가로 옥토를 얻는 영웅적 존재이다.

1) ④ [이론 문법 - 의미론 - 문맥적 의미]
(ㄱ, ㄹ) 밑줄 친 '길'은 '어떤 일에 익숙하게 된 솜씨.'이다. ㄱ은 농촌 생활에 익숙해져 좋은 솜씨를 지니게 되었다는 의미이고, ㄹ은 서랍을 열고 닫는 움직임이 부드럽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ㄷ의 밑줄 친 '길'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이다. ㄴ의 밑줄 친 '길'은 '걷거나 탈것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의 뜻인데, 이는 ㄷ의 다의적 의미이므로 유의어 관계이다.
(ㅁ) 밑줄 친 '길'은 '길이의 단위'인 단위 의존 명사이다. 한 길은 사람의 키 정도의 길이이다.
따라서 밑줄 친 '길'의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으면 (ㄱ, ㄹ), (ㄴ, ㄷ), (ㅁ)이다.

2) ④ [독해(비문학) - 배치]
<보기>의 문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라는 표지 및 '이데아계'와 '경험계'라는 개념이다. '여기서'라는 표지를 통해 <보기>의 문장이 그 앞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문장 앞에는 '이데아계'와 '경험계'라는 개념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위치는 ㉣이다. 지문에서 '이데아계'와 '경험계'라는 단어는 ㉣ 앞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 바로 뒤에서 이 두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보기>의 문장이 등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 ③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ㄱ. '앞집'은 '앞쪽으로 이웃하여 있는 집.'이라는 뜻의 명사로 합성 등재되었으므로 붙여 쓴다. '금실(琴瑟)'은 '부부간의 사랑.'을 뜻하는 명사로 '거문고와 비파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 '금슬(琴瑟)'과 복수 표준어이다.
ㄴ. '빈칸'은 '비어 있는 칸.'이라는 뜻의 명사로 합성 등재되었으므로 붙여 쓴다. '메우다'는 '뚫려 있거나 비어 있는 곳을 막거나 채우다.'라는 뜻의 동사로 '빈칸'과 함께 쓸 수 있다. '메우다'와 '메꾸다'는 복수 표준어이다.
참고로, 동사 '채우다'는 '【…을 …에】 【…을 …으로】 일정한 공간에 사람, 사물, 냄새 따위를 가득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빈자리를 채우다.'와 같이 쓴다.
ㄷ. '언덕바지'는 '언덕의 꼭대기. 또는 언덕의 몹시 비탈진 곳.'이라는 뜻으로 '언덕배기'와 복수 표준어이다.
따라서, 맞춤법에 맞는 문장은 ㄱ, ㄴ, ㄷ으로 총 3개이다.
[오답해설]
ㄹ. → 동생은 부모님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u>짓궂은</u> 장난을 친다.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는 뜻의 형용사로는 '짓궂다'가 옳은 표기이다. '짖궂다'는 잘못된 표기이다.
'부모님의 주의에도 불구하고'에 쓰인 '주의(注意)'는 '경고나 훈계의 뜻으로 일깨움.'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주위(周圍)'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 또는 그 환경'이라는 뜻으로 쓰여 '주위 환경, 주위를 둘러보다.'와 같이 쓰인다.
ㅁ. → 실내에서는 흡연을 <u>삼가시기</u> 바랍니다.
'꺼리는 마음으로 양(量)이나 횟수가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하다.'라는 뜻의 동사로는 '삼가다'가 옳은 표기이다. '삼가하다'는 잘못된 표기이다.

4) ①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 부모님의∨염려를∨<u>뒤로하고</u>∨유학길에∨올랐다.
'뒤로하다'는 '뒤에 두다, 뒤에 남겨 놓고 떠나다.'라는 뜻의 동사로 합성 등재되었으므로 붙여 써야 한다.
'유학길'은 '유학하러 가는 길.'이라는 뜻의 명사로 합성 등재되었으므로 붙여 써야 한다.
[오답해설]
② '한쪽'은 '어느 하나의 편이나 방향.'이라는 뜻의 명사로 합성 등재되었으므로 붙여 쓴다.
'맞은편'은 '서로 마주 바라보이는 편'이라는 뜻으로 합성 등재되었으므로 붙여 쓴다.
③ 제시된 문장에서 '그∨밖에'는 '그 외에도'라는 뜻이므로, '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관형사이고 명사 '밖'과 띄어 써야 한다.
'등'은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의 뜻인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④ '성안'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안.'이라는 뜻의 명사로 합성 등재되었다.
'여러'는 '수효가 한둘이 아니고 많은.'을 뜻하는 관형사이므로 명사 '곳'과 띄어 쓰는 것이 옳다.
'터'는 '집이나 밭 따위가 없이 비어 있는 땅.'이라는 뜻의 명사이다. '건물 터'와 '연못 터'는 '놀이터'처럼 합성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건물∨터', '연못∨터'처럼 띄어 쓰는 것이 옳다.
'남아∨있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본래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본용언에 연결 어미 '-아/-어'로 보조 용언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⑤ 한글 맞춤법 제43항에 따라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써야 하므로 '200∨미터'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만 조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기 때문에 '200미터'처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여(餘)'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그 수를 넘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수효를 나타내는 '개년, 개월, 일(간), 시간' 등은 붙여 쓰지 않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43항에 따라 '10여∨일간'처럼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5) ⑤ [어문규정 - 외래어 표기법]
'encore'는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외래어 표기법 제7항의 예외이므로 '앙코르'라고 적는다. '앵콜', '앙콜'은 틀린 표기이다.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외래어 표기법 제4항에 따라 '의상실'을 뜻하는 'boutique'는 '부띠끄'로 적지 않고 '부티크'로 적는다.
'설문 조사'를 뜻하는 'enquête[enquête]'는 '앙케이트'로 적으면 발음에는 없는 '이'를 덧내는 것이다. 따라서 '앙케트'로 적는다.
[오답해설]
① 기브스(×) → 깁스(○)
② 도너츠(×) → 도넛, 래디오(×) → 라디오(○)
③ 리모콘(×) → 리모컨, 렌트카(×) → 렌터카, 메세지(×) → 메시지(○)
④ 바베큐(×) → 바비큐(○)

6) ②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부정 발문]
둘째 문단에 따르면,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통해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전달할 수 있으며 말로써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꺼릴 경우에도 미술이 유용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술이 언어로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표현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일 뿐, 자신의 경험을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해설]
① 첫째 문단에 따르면, 언어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불완전하고 제한된 도구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언어가 주가 되는 대화만을 통한 정신 치료는 온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첫째 문단에 따르면 인간은 주로 언어를 통해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언어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불완전하고 제한된 도구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이 언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첫째 문단에 따르면 시각적 이미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풍부하고 생생하며 미묘한 경험들은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둘째 문단에 따르면 아동은 발달학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어 이를 고려한 미술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동과 성인의 미술 치료 원리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하였다.

7) ④ [독해(문학) -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
남편은 "나는 하자면 하지만, 자네는 여인이라 나는 끝내 모르겠네."라고 하며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여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망설였다.

[오답해설]

① "만 냥 돈만 번다면 그런대로 고향 가서, 이전만큼은 못 살아도 남에게 천대는 안 받으리다."라는 아내의 말을 통해 주인공 부부는 과거에 빈곤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주인공 부부는 종살이 외에도 틈틈이 잔심부름을 하는 사환 일이나 체계(장에서 비싼 이자로 돈을 꾸어 주고 장날마다 본전의 일부와 이자를 받아들이던 일)을 하여 돈을 모은 것이지, 장사를 한 것이 아니다.

③ 무슨 일이든 해서 돈을 벌어 고향에 가서 살자고 한 것은 남편이 아니라 부인이다. 다섯 해 작정하고 종살이를 하여 돈을 모은 뒤 고향에 가자는 아내의 말에 남편은 그런대로 다니면서 빌어먹고 사는 게 낫겠다고 하기도 하고, 자신은 하자면 하지만 아내는 여인이라 모르겠다며 아내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⑤ 병술년에 자연재해(괴질)가 닥쳐,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주인공 부부의 꿈이 좌절된 것은 맞으나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은 아니다.

[지문 연구]

※ 작자 미상, <덴동 어미 화전가>

- 해제: 이 작품은 화전놀이에 나선 청춘 과녀가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다가 비극적 삶으로 점철된 덴동 어미의 일생담을 듣고 나서 마음을 고쳐먹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부인네들과 기쁜 마음으로 화전놀이를 끝낸다는 내용을 담은 가사이다. '화전가'란 보통 봄에 부녀자들이 산에 올라가 화전을 만들어 먹는 놀이를 노래한 것이다. 이 작품 역시 그러한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그 속에 주인공 덴동 어미의 특별한 삶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화전가와 구별된다. 한편, 이 작품은 조선 말기의 사회상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 주제: 조선 후기 어느 여인의 비극적이고 운명적인 삶
- 전체 줄거리: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장편 규방, 서민 가사로서 순흥 지방의 화전놀이를 소재로 부녀자들의 삶의 모습을 읊고 있다. 부인네들이 봄을 맞이하여 화전놀이를 가서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속에 주인공 덴동 어미의 기구한 삶의 내력을 담고 있다. 화전놀이를 떠나 놀던 중 한 청춘과부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자 덴동 어미가 자신은 중인 출신으로 네 번 결혼을 했는데 남편들이 모두 죽어 과부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층민과 다를 바 없는 피폐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며 개가를 말리는 사연이 중심을 이룬다. 부녀자들이 나누는 대화와 덴동 어미의 삶의 내력 속에는 조선 말기 중하층 여성의 고난에 찬 현실이 사실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결말은 덴동 어미의 말을 듣고 청춘과부가 마음을 고쳐먹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다른 부인네들과 기쁜 마음으로 화전놀이를 끝낸다는 내용으로 한을 신명으로 풀어 내는 모습을 보여 준다.

8) ⑤ [독해(비문학) – 전개 방식 긍정 발문]

부여, 고구려, 동예의 '제천의식'을 시작으로 고려와 조선에서의 제천의식을 제시하며 시대별로 '제천의식'(중심 화제)의 성격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오답해설]

① '고대의 축제'를 '국가적 공의'와 '민간인들의 마을굿'이라는 두 개념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들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서술하지 않았다.

② '제천의식'에 대해 시대별로 제시하였으나 이를 비판하지 않았으며 그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③ 시대별 다양한 제천의식(사례)을 제시하였으나 어떠한 개념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에는 이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9) ⑤ [독해(비문학) – 논리학]

첫 번째 섬의 주민 갑이 '건달'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갑의 말은 거짓이어야 하므로, '을이 건달이며, 첫 번째 섬은 마야섬이 아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을도 '건달'이라고 가정하면, '갑이 기사이며, 첫 번째 섬은 마야섬이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갑이 '건달'이라는 가정과 모순된다. 따라서 갑은 '기사'이다. 하지만 ㄱ에서는 '갑과 을이 모두 건달'이라고 하였으므로, ㄱ은 참이 아니다.

두 번째 섬에서는 갑이 '우리 둘은 모두 건달이고, 이 섬은 마야섬'이라고 하는데, 만약 갑이 기사라면 이 말은 모순이 되므로 갑은 '건달'이어야 한다. 따라서 갑은 거짓만 말해야 하는데, 을이 '갑의 말은 옳다.'고 하였으므로 을 역시 '건달'이다. 갑의 말은 거짓이어야 하는데, 갑과 을은 모두 건달이므로 두 번째 섬이 마야섬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두 번째 섬에서 갑과 을은 모두 건달이며, 두 번째 섬은 마야섬이 아니다. 즉, ㄴ은 참이다.

세 번째 섬에서도 두 번째 섬과 같은 논리로 갑은 '건달'이어야 한다. 을 역시 '건달'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갑의 말이 거짓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섬이 '마야섬이 아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을의 말은 참이 되어 을이 '건달'이라는 가정과 모순된다. 따라서 을은 기사이고, 이에 따라 세 번째 섬은 마야섬이 아니다. 즉, ㄷ은 참이다.

따라서 반드시 참인 <보기>는 ㄴ, ㄷ이 된다.

10) ③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링컨'이 몇 번째 대통령인지에 대한 정보와 미국의 화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이라면, '워싱턴'과 '링컨'을 연결하고, 숫자 '1'과 미지항 x를 연결하는 '대응'의 과정까지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찾아낸 규칙을 대상 영역에 적용하는 '적용'의 과정에서 미지항 x의 답을 찾지 못해 실패할 것이다.

[오답해설]

① 미국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워싱턴'이나 '링컨'이 어떠한 의미인지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부호화' 단계에서 실패할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워싱턴'이 미국의 도시 이름이라는 정보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워싱턴'과 숫자 '1'로부터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하여 '추리'의 단계에서 실패할 것이다.

④ 미국의 화폐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만 미국 역대 대통령의 순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이라면, 조지 워싱턴이 1달러 지폐의 인물이고 아브라함 링컨이 5달러 지폐의 인물이라는 정보를 통해 '적용'의 단계에서 '5'를 선택할 것이다.

⑤ 'x'에 들어갈 수 있는 답으로 '5'와 '16'을 찾아낸 사람에게 'x는 순서를 나타낸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 그 사람은 '정당화' 단계에서 역대 대통령의 재임 순서를 나타내는 답인 '16'을 선택할 것이다.

11) ④ [이론 문법 – 형태론 – 품사 변별]

9개의 품사 중 '격 조사나 어미를 취할 수 있는 단어'는 용언이다.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용언은 관형사와 달리 어미를 통해 형태를 바꿔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 격 조사가 용언의 활용형에 붙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늘 웃음으로(써) 친구를 맞이한다.'에서 '웃음'은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을 사용한 동사의 명사형이며, 부사격 조사 '으로(써)'를 사용하여 '방법'의 의미를 나타낸다.

④ '뛰는'은 동사 '뛰다'의 어간 '뛰-'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붙어 활용한 것으로 품사는 여전히 동사이며 관형사로서의 쓰임은 없다.

[오답해설]

나머지 선지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관형사이다.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어미를 취하지 않으므로 형태를 바꾸어 활용할 수도 없다.

① '모든'은 명사 '욕심'을 수식하고 활용하지 않으므로 관형사이다.

② '무슨'은 명사 '일'을 수식하고 활용하지 않으므로 관형사이다.

③ '다른'은 명사 '일'을 수식하고 있으며 활용하지 않으므로 관형사이다. 관형사 '다른'은 관형사 '딴'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형용사 '다르다'의 활용형인 '다른'은 서술성이 있으며 활용할 수 있으므로 관형사가 아닌 용언에 해당한다. 형용사의 관형사형 '다른'은 '딴'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⑤ '어느'는 명사 '곳'을 수식하고 활용하지 않으므로 관형사이다.

12) ④ [독해(비문학) – 배열]

(가) 특정한 날의 날씨를 맞히는 것은 어렵지만, 긴 기간에 걸친 평균적인

날씨를 맞히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내용이다.
(나) 현재의 기상 예측 기술로 내일의 날씨 정도는 정확하게 맞히고 있지만, 사나흘 이후의 강수 예보는 정확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다) '더구나'라는 보충의 접속어 뒤에 날씨 예측은 2주일 정도가 한계라는 내용이 등장했다. 따라서 (다) 앞에도 먼 미래의 날씨 예측이 어렵다는 내용이 등장해야 하므로, (다) 앞에 (나)가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 선지 ①, ③ 탈락
(라) 기상 예측과 기후 예측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두 개념을 정의하는 내용이므로 지문의 초반부에 위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마) 기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며 기상과 기후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상 예측과 기후 예측이 처음 등장한 (라)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 선지 ②, ③, ⑤ 탈락
이를 종합하면, 논리적 순서에 맞는 배열 순서는 '(라)-(마)-(나)-(다)-(가)'이다. (라)와 (마)에서 기상 예측과 기후 예측의 개념을 제시하고, (나)와 (다)에서 기상 예측과 기후 예측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밝히며, (가)에서 기후 예측과 기상 예측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13) ⑤ [독해(비문학) - 빈칸 추론]
㉠의 뒤에 온 접속어 '따라서'를 통해 ㉠에는 '인생의 본질은 목표의 설정과 성취가 아니라 유지와 지속'인 이유가 전제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인생의 본질이 유지와 지속에 있으며,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낼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에서 중노년의 삶이 지루하고 의미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넷째 문단에서 '생각보다 긴 내 삶을 지속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문의 첫 문장에는 '삶은 생각보다 길다.'가 와야 한다.
[오답해설]
① 지문의 주제 의식은 '생각보다 긴 삶을 의미 있게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셋째 문단에서 '중노년의 삶이 지루해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것이 ㉠ 뒤에 오는 내용의 전제는 아니다. 중노년에도 지루하지 않게 본인의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지문에서는 삶이 자칫 지루해지거나 의미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삶을 행복하게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첫 문장으로 '삶은 생각보다 행복하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맥락상 뒷부분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③ 삶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은 지문에 제시된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④ 글에서 지적하는 점은 삶이 길기 때문에 자칫 중노년의 삶이 지루하거나 의미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이 생각보다 고통스럽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14) ② [어휘 - 속담 + 성어]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옳고 그름이나 신의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과 유사한 의미의 사자성어는 '고진감래(苦盡甘來)'가 아니라 '감탄고토(甘呑苦吐)'이다.
감탄고토(甘呑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
甘 달 감, 呑 삼킬 탄, 苦 쓸 고, 吐 토할 토
고진감래(苦盡甘來):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
苦 쓸 고, 盡 다할 진, 甘 달 감, 來 올 래(내)
[오답해설]
① ㉠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
「1」 일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애쓴 보람이 나타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일거양득(一擧兩得):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
一 한 일, 擧 들 거, 兩 두 양(량), 得 얻을 득
③ ㉢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 기역 자 모양으로 생긴 낫을 보면서도 기역 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목불식정(目不識丁): 아주 간단한 글자인 '丁' 자를 보고도 그것이 '고무래'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주 까막눈임을 이르는 말.
目 눈 목, 不 아닐 불, 識 알 식, 丁 고무래 정
④ ㉣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값이 같거나 같은 노력을 한다면 품질이 좋은 것을 택한다는 말.
동가홍상(同價紅裳):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뜻으로, 같은 값이면 좋은 물건을 가짐을 이르는 말.
同 한가지 동, 價 값 가, 紅 붉을 홍, 裳 치마 상
⑤ ㉤ 원님 덕에 나팔[나발] 분다: 사또와 동행한 덕분에 나팔 불고 요란히 맞아 주는 호화로운 대접을 받는다는 뜻으로, 남의 덕으로 당치도 아니한 행세를 하게 되거나 그런 대접을 받고 우쭐대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가호위(狐假虎威):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狐 여우 호, 假 거짓 가, 虎 범 호, 威 위엄 위

15) ① [이론 문법 - 통사론 - 관형절의 종류]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의 내용이 된다. 이러한 명사류('소문, 생각, 주장, 제안, 사실, 인상, 기억, 일' 등)들은 문장에서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용이 되는 동격 관형절과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계 관형절은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과 그 관형절 안의 문장 성분이 일치할 때 그 성분을 생략한 관형절이다.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의 한 성분(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이 되는 경우이다.
관형절 '급히 학교로 돌아오라는'은 그것이 수식하는 체언인 '연락'의 내용이 되는 동격 관형절이다.
[오답해설]
나머지 선지는 모두 관계 관형절이다.
② 체언 '서점'과 그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절 '내가 어제 책을 산' 안의 부사어가 일치하여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다.
③ 체언 '거북선'과 그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절 '충무공이 만든' 안의 목적어가 일치하여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다.
④ 체언 '섬'과 그 체언을 수식하는 '사람이 살지 않는' 안의 부사어가 일치하여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다.
⑤ 체언 '돌각담'과 그 체언을 수식하는 '수양버들이 서 있는' 안의 부사어가 일치하여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다.

16) ③ [어문규정 - 표준 발음법]
ㄱ. 계절병[계:절뼝/게:절뼝]: 표준 발음법 제5항 "'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ㅟ ㅢ'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의해 '계절병'의 '계'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또 표준 발음법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의해 '계절병'은 [계:절뼝]으로 발음한다.
참고로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2의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한다."에 의해 '계절병'은 [계:절뼝]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나 [게:절뼝]으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ㅁ. 관세[관세]: '관세'는 된소리가 날 뚜렷한 까닭이 없고, 발음할 때 아무런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표기대로 발음한다.
[오답해설]
ㄴ. 신윤복[시뉸복]: 'ㄴ'을 첨가하는 경우는 표준 발음법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에 해당할 경우인데, 이는 수의적 현상으로 표기대로 'ㄴ'첨가 없이 발음하기도 한다. 또한, 현재 국립국어원은 이름을 합성어나 파생어가 아닌 하나의 단어로 보고 있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상 그대로 연음하여 [시뉸복]으로 발음한다.
ㄷ. 논조[논조]: '논조'는 된소리가 날 뚜렷한 까닭이 없고, 발음할 때 아무런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표기대로 발음한다.
ㄹ. 과반수[과:반수]: '과반수'는 표준 발음법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

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수의적 현상으로,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인 경우이지만, 된소리가 나지 않아 [과:반수]로 발음한다.

17) ③ [어문규정 - 로마자 표기법]
'해돋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해도지]로 발음되므로 'haedoji'로 적는다. 이는 ㉢의 예시로 적절하다.
[오답해설]
① '학여울'은 [학녀울]이 아니라 'ㄴ' 첨가 후에 역행 비음화가 일어나 [항녀울]로 발음된다. 따라서 'Hangnyeoul'로 쓴다. 또한 이는 ㉠의 예시가 아니라 ㉡의 예시이다.
② '왕십리'는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나 [왕심니]로 발음되므로 'Wangsimni'로 쓴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그러나 이는 ㉡의 예시가 아니라 ㉠의 예시이다.
④ '집현전'은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지편전]으로 발음되는데, 체언에서의 거센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ㅎ'을 밝혀 적어 'Jipyeonjeon'이 아닌 'Jiphyeonjeon'으로 적는 것이 옳다. 이는 ㉣의 예시로 적절하다.
⑤ '팔당'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팔땅]으로 발음되지만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Palddang'이 아닌 'Paldang'으로 적는 것이 옳다. 이는 ㉤의 예시로 적절하다.

18) ③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 사례 추론]
문학 비평가가 아동심리학 이론을 인용하여 동화 속 인물의 심리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기존 경험(아동심리학 이론)과 새로운 경험(동화 속 인물의 심리 현상 분석)이 인접한 영역에 속하므로, 원거리 전이가 아니라 '계열 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해설]
① 의사가 대장암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대장암 환자를 치료해 내는 것은 기존 경험(대장암에 대한 의학적 지식)과 새로운 경험(대장암 환자 치료)이 동일한 영역에 속하므로 '동종 전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천문학자가 물체의 운동에 대한 공식을 활용하여 혜성의 이동 속도를 계산해내는 것은 기존 경험(물체의 운동에 대한 공식)과 새로운 경험(혜성의 이동 속도)이 인접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계열 전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초등학생이 사각형의 넓이 계산법을 이용하여 사각형인 교실의 면적을 구하는 것은 사각형의 넓이 계산법이 사각형인 교실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므로 '수직적 전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둘째 문단에서 영향 관계에 있는 두 경험의 위계 수준에 따라 '수직적 전이'와 '수평적 전이'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19) ① [독해(비문학) - 중심 화제]
지문에서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외부의 소리가 그대로 귀에 전달되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소리가 뇌에서 재해석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친숙하며 해가 없는 것으로 기억되어 있는 소리는 뇌에 전달이 되어도 의미 없는 자극으로 무시되지만 반대로 생존과 관련되어 있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하는 소리는 더 잘 듣는다고 하였다. 이는 소리가 뇌에서 재해석되는 과정을 통해 소리를 선택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소리의 선택적 지각'이다.
[오답해설]
② 소리 자극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모든 소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감정을 유발한다고 하였으나 소리의 감정 유발 기능이 글의 중심 내용은 아니다.
④ 인간의 뇌와 소리와의 관계가 제시된 부분이 있으나 글의 중심 내용이 아니다.
⑤ 동물과 인간의 소리 인식 과정을 비교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20) ⑤ [이론 문법 - 고전 문법 - 훈민정음 제자 원리]
후음 'ㅇ'에 획을 더해 만든 가획자는 'ㆆ(옛이응)'이 아니라 'ㅎ(여린히읗)'과 'ㅎ'이다. 'ㆆ(옛이응)'은 아음의 이체자이다.
참고로 이체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나, 단순히 기본자와 그 꼴을 달리 했을 뿐이지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특성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즉, 소리의 세기에 따른 가획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다.
◆ 초성 17자

오음(五音)	기본자(基本字)	가획자(加劃字)	이체자(異體字)
아음(牙音)	ㄱ	ㅋ	ㆁ
설음(舌音)	ㄴ	ㄷ, ㅌ	ㄹ
순음(脣音)	ㅁ	ㅂ, ㅍ	
치음(齒音)	ㅅ	ㅈ, ㅊ	ㅿ
후음(喉音)	ㅇ	ㆆ, ㅎ	

21) ④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무진'은 '안개'가 자주 덮이는 곳으로, '안개'는 사람들을 둘러싸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 놓는다고 하였다. 또한 '무진'에 사는 사람들은 안개 속에서 '자기 자신조차 잊어버리면서' 수군거림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들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무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한 채 자기 세계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해설]
① '무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용돌이 밖으로 내던져졌을 때 자기들이 느낄 공허함도 모른다는 듯이 수군거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무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실체를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무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과 합일된 삶을 꿈꾸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③ '무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은 모두 속물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포용적 자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무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지문 연구]
※ 김승옥, <무진기행>
- 해제: 이 작품은 1950년대 전후 문학이 보여 준 인생 낙오자들의 자학이라는 무거운 주제 의식에서 벗어나 1960년대적 삶을 일목요연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무의지적이고 수동적인 주인공의 의식이 점차 깨어나 자기 환경과 상황을 뚜렷이 인식하여 그 상황을 극복하려는 자세이다. 이 작품은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보편적 인간 심성을 기본 줄기로 한다. 주인공이 갖는 의식의 변화는 서울로 표상되는 '일상의 현실적인 공간'과 '그로부터의 일탈'이라는 두 가지의 내면적 갈등이 존재한다. 주인공인 '나'가 서울을 떠나 무진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는 '떠남→추억의 공간→복귀', 즉 '서울→무진→서울'의 귀향 모티프를 통하여 작가의 인생관이 가장 잘 응축되어 있는 작품이다.
- 주제: 안개로 상징되는 허무로부터 벗어나 일상의 공간으로 돌아오는 한 남자의 귀향 체험
- 구성
  - 발단: 잠시 쉬기 위해 고향 무진에 돌아온 '나'는 도착하는 순간부터 어둡던 청년 시절을 연상하게 됨.
  - 전개: '나'는 술자리에서 하인숙을 만남. 그녀의 허무주의적 태도에 이끌림.
  - 위기: '나'는 한밤중에 하 선생과 함께 걷는 동안 그녀로부터 우울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함.
  - 절정: 성묫길에 목격한 자살한 사람의 시체, 육체적 관계를 맺은 하 선생의 조바심을 통해 순수했던 과거를 다시 접하게 된 '나'는 그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갈등함.
  - 결말: 상경하라는 아내의 전보. 몽환에서 깨어나듯, '나'는 과거를 배신한 채 무진을 떠남.
- 전체 줄거리: 장인이 경영하는 제약 회사의 간부인 '나(윤희중)'는 현실에서 좌절했을 때나 심하게 갈등을 겪을 때면 고향 무진을 찾아간다. 서른 세 살의 '나'는 젊고 부유한 미망인과 결혼을 했고, 얼마 후에는 제약 회사 전무가 될 예정이다. '나'에게 무진은 어머니의 묘가 있고 또 젊은 날의 추억이 있는 곳으로 '나'는 그곳에서 세무 서장이 되어 있는 중학 동창 조와 국어 교사로 있는 후배 박, 그리고 음악 교사인 하인숙을 만난다. 조는 출세와 성공에만 관심 있는 속물적 인간인데 비해 박은 지극히 순수한 인물로 세속적인 것을 못 견뎌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하인숙을 조가 희롱하는 것을 보고도 그저 그 자리를 피해 버릴 뿐이다. 박이 사랑

하고 있는 하인숙은 순수와 세속적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물로 '나'와 가장 유사한 인물형이다. 대학 졸업 음악회 때 「나비부인」의 아리아 '어떤 개인 날'을 불렀다는 그녀는 술자리에서 청승맞게 유행가를 부른다. 그녀는 '나'와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무진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간청한다. '나'는 하인숙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발견하고 나르시시즘적인 육체 관계를 가진다. 또한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끝내 말하지는 않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내로부터 온 전보를 받는다. 빠른 상경을 바라는 아내의 전보는 과거의 의식 속에 빠져 있던 '나'를 일깨운다. 무진이라는 과거에서 깨어나 이제 서울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나'는 하인숙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썼다가는 찢어 버리고 이제는 영원히 기억의 저편에 무진을 묻어 두기로 결심하면서 달아나듯 무진을 떠나는데, 자신의 그런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22) ③ [독해(문학) – 현대 운문의 내용 이해]

'그리운 소식', '서글픈 옛 자취', '잃어진 추억의 조각', '차단한 의상'은 모두 '눈'을 비유한 표현이다.

[오답해설]

① 이 시는 눈 내리는 아침의 정경이 아니라, 눈 내리는 한밤의 정경 속에 피어오르는 추억을 그리고 있다.

② '소리 없이 흩날리느뇨', '희미한 눈발'을 통해 눈발이 세차게 날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연의 '머언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통해서도 눈이 세차게 날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정재찬, 《시를 잊은 그대에게》(휴머니스트, 2016)

이 시의 꽃은 역시 "머언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한 구절을 위해 이 시가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다. 그러나 현재 중등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 가운데 가장 도발적이고 관능적인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 표현이 주는 매혹을 제대로 음미해 볼 여유도 없이 안타깝게도 주로 기법적인 측면에서만 공부를 하게 될 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대목을 두고, 바로 '시각의 청각화', '공감각적 이미지' 등을 운위하는 것이다. 헌데 명색이 시 전공자인 나 자신도 도대체 그런 설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먼 곳에서 여인의 옷 벗는 소리가 귀에 들리겠는가. 왈가닥 처녀 아이도 아니고 여인이, 그것도 옆방에서가 아니라 먼 곳에서 옷을 벗는데 그 소리가 들릴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 옷은 하늘하늘한 실크 잠옷이거나 곱고 단아한 한복이거나 어딘가 그런 이미지가 아니겠는가.

그렇다. 아무래도 안 들린다. 김광균이 주목한 것은 바로 밤눈의 이러한 속성, 곧 '소리 없음', '고요함'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눈은 소리 없이 내릴 뿐 아니라 눈 내리는 밤은 평소보다 더 고요하기까지 하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눈의 입자가 육각형 흡음 구조라서 밤에 눈이 쌓이면 사위가 고요해진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우리 누구가 경험해 보았듯이 밤눈은 눈치도 못 채고 있다가 무심코 창밖을 보거나 방을 나서야 알 때가 많다. 그때의 감동과 설렘을 떠올려 보라. 어쩌면 이 시의 화자도 방 안에 있다가 눈을 맞이했고 그래서 뜰에 내려갔을지도 모른다. 소리 없이 흩날리는 눈이었으니 정녕 그는 눈 오는 줄 미처 몰랐으리라.

하지만 소리가 나는 것은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겠으나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어찌 표현할까? 시냇물이 '졸졸' 흐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시냇물이 소리 없이 흐른다는 것은 달리 어찌 표현하겠는가? 바로 이 지점에 '머언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라는 표현의 묘미가 숨어 있는 것이다.

④ 이 시에서 '나'를 슬프게 하는 추억, 과거의 경험이 친구와 관련된 것이라 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4연의 '머언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를 통해 여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⑤ 5연에서 흰 눈이 '내 슬픔' 위에 쌓인다는 것은 슬픔이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지문 연구]

※ 김광균, <설야>

- 해제: 한밤에 눈 내리는 모습과 그 느낌에 대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화자는 호롱불에 비친 처마의 끝에 켜진 눈 오는 밤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이때 눈은 과거의 추억을 환기하면서 화자를 슬픔에 젖어들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화자는 눈에 대한 느낌을 '그리운 소식', '서글픈 옛자취',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싸늘한 추회'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눈이 화자에게 다양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눈 오는 밤의 정경 및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이 회화적 심상의 시어를 통해 서정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 주제: 눈 내리는 밤의 애상과 그리움

23) ⑤ [독해(비문학) – 빈칸 추론]

㉠은 글의 마지막 문장이며 '따라서'로 시작되므로, 글 전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여 주는 주제문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첫째 문단에서는 디지털화된 정보들은 대다수가 아날로그 기반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하며 아날로그 문화가 디지털 문화에 영향을 준 경우를 제시하였다. 둘째 문단에서는 아날로그가 디지털과 결합해 더욱 활성화되기도 한다며 디지털 문화가 아날로그 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아날로그 문화와 디지털 문화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이 글의 주제가 된다.

따라서 ㉠에는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를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본질과 거리가 멀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4) ② [독해(비문학) – 빈칸 추론]

㉡의 앞에서 정치인과 지도자의 거짓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정치지도자는 유권자의 일시적 신뢰에 연연하지 않고, 불행한 진실이라도 전달해야 한다.'는 이상적인 내용이 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오답해설]

① ㉠의 뒤에 '당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므로, 처칠은 그럴 수 없을 때라도 완벽하게 승전에 자신이 있다는 투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당시 처칠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므로, ㉠에 '처칠은 진실하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위치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의 앞에는 신뢰와 불신, 진짜 부패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며, 뒤에는 유권자의 '이런 혐오'를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런 혐오'라는 지시어에 주목해 볼 때, ㉢ 앞에서 언급된 부패가 유권자를 민주주의 정치에 등 돌리게 하고 선출된 지도자를 혐오하게 만든다는 문장이 ㉢에 오는 것은 적절하다.

④ ㉣의 뒤에는 '이들이 더 부도덕하다고 평가할 이유도 없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맥락상 ㉣에는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선출된 정치인이 다른 나머지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고 단정할 이유는 없다.'가 들어가야 한다.

⑤ ㉤의 앞에는 여러 정당과 정치인이 부패 혐의에 빠지곤 한다는 내용이, 뒤에는 그들의 부패 때문에 아웃사이더들이 활동하며 주류가 번성하는 데 실패하곤 했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맥락상 ㉤에는 주류 세력이 부패 때문에 쇠락했다는 내용이 위치해야 한다.

25) ④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긍정 발문]

늙은 황룡(㉣)은 활 잘 쏘는 청년(㉤)의 도움을 받았으며, 서해 용왕(㉦) 역시 작제건(㉥)의 도움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인간 존재의 도움을 받은 신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오답해설]

① 늙은 여우(㉦)는 악한 존재로 볼 수 있으나, 황금산 앞바다의 황룡(㉠)은 악한 존재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청룡과 황룡 사이에서 누가 선한 용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② 둘째 문단에 따르면 인간 존재가 용을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게 될 때 용은 풍요의 신에서 권력의 신으로 변형된다. 그러나 칠산 앞바다의 청룡(㉡)과 가뭄을 발생시키던 청룡(㉧)은 풍요의 신일 뿐 권력의 신으로 변형된 존재라고 말하기 어렵다.

③ 용을 도운 대가로 영웅이 권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내용은 둘째 문단에 등장한 서해 용왕(㉦)과 관련이 있다. 젊은 청룡(㉢)과 벽골제를 수호하는 백룡(㉨)은 모두 첫째 문단에 등장한 용으로, 영웅의 권력을 뒷받침한 존재와는 거리가 멀다.

⑤ 작제건(㉥)은 용왕을 도와준 대가로 용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지, 옥토(沃土)를 얻은 것이 아니다. 용을 도와준 대가로 기름진 논을 얻은 존재는 활 잘 쏘는 청년(㉤)이나, 그마저도 활 잘 쏘는 청년이 영웅적 존재라고 보기는 어렵다.